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최상의 경건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13절

Tag: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13:8-13)

코로나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그리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

평범하지 않은 일상을 지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궁금하다. 쉽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언젠가는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고, 방언조차도 그치는 시기가 온다. 그때는 설교가도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 그때까지는 지식을 얻기가 쉽지도 않고, 전달하기도 한계가 있으며, 또 쉽게 잊혀진다. 또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지식은 바닷물처럼 물은 물이로되 갈증을 유발하는 물이 된다.)

-또 우리가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국면 전환의 시기가 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가 국면을 전환 시켰다.)

- 시즌이 바뀐 것이다.
- 시대가 변한 것이다.
- 새로운 유행이 시작된 것이다.
- 주인이 바뀌고, 힘의 중심이 이동되고, 가치에 변화가 있다.
- 전에는 중요한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전에는 하찮은 것들이 어느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익숙치 않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주저하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속 시원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들도 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보이는 것들이 있다. 전에는 늘상 그랬던 것들을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그래서 더 환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되고, 거짓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속에 품고 있었던 욕심들의 정체가 밝혀진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도 멀지 않음)

그러나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

성경은 그런 가치들이 진리라고 밝혀주고 있다. 다른 것들은 다 잊더라도 진리가 밝혀주는 가치들은 잊지 말아야하고,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치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라고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최상의 경건은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상의 경건이다.

물론 우리는 아직 그 사랑에 대해서 조차 온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아직은 온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 어리고, 부분적이며, 생각도 깊지 못하다.

-아직은 그럴 수 있는 시즌이 아닌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것은 아니다. 지난 주에는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수많은 엄마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오열했고, 정인에게 미안해 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사랑의 단면일 것이다.

-나는 정인이 양부모의 부모들이 모두 목회자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뭐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예배를 원치 않으실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10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1:10-13)

-우리의 예배를 견디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주의 일이 밥벌이가 되고, 기득권이 되고, 자량이 되고, 명예가 되었는데 타락하여 악한 것을 익히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약자에게 화풀이하고.

-주의 일이 기득권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기득권이 되었다면 누구보다 헌신하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알고 있는 것조차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실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사실은 너무 작은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실천해야 한다.

-세상이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사랑이 뭔지도 모르냐고 울부짖기 전에, 나는 왜 알고 있는 사랑도 충분히 실천하지 못하느냐고 가슴을 쳐야 할 것이다.

-건물을 짓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물 담긴 호스다. 수평호스라고 부른다. 수평을 맞추는 한 쪽 끝의 높이를 표시하고 그 표시만큼 물이 차 오르는지를 본다. 그리고 다른 한 쪽의 높이만큼 맞은 쪽 호스의 물이 차 오르는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수평을 맞춘다.

-한쪽 끝이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쪽 끝이 이웃사랑이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수준인 셈이다.

-내가 베푸는 하나님 사랑이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한다. 베푸는 것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받은 복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베푸는 사랑도 이 정도로 클거라고 착각하지 말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풍요나 행복이나 만족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단 먹는 것부터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내가 먹는 모든 것이 누군가 땀을 흘렸기 때문이다.

결국 진실하고 성실해야 한다.

누가 불행한가? 성경은 결국 진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자로 인해서 불행이 닥쳐온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간단한 진리라도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는가?

진실하고 성실한 것은 첫 번째 경건이다.

두 번째 경건은 겸손이다.

성실하게 일해서 푼돈이라도 모을 줄 아는 사람들 중에 이 두 번째 경건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푼돈을 쥐고서 교만하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도 저축할 줄 모른다. 돈을 함부로 소비하고 심지어 갑질까지 서슴이 없다. 교만해서 가르침도 받지 않는다. 자기 앞가림만 알고 부양의 책임은 모른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고, 부양할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다.

세 번째 경건은 승리하는 삶이다.

세상에는 죄악이 많다. 유혹도 많다. 경쟁도 많다. 그래서 전쟁터와 같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해진다. 물론 두 번째까지의 경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매일 경쟁하기 때문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경쟁하려고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돕는 천사도 보내신다.

-승리하자!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 최상의 경건이 남아있다. 최상의 경건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 세가지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 믿음과 소망은 하찮게 여기라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자.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이것이 최상의 경건이다. 아멘.

몰상식, 지식도 그치리라.

경건하다;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독실篤實하다;그 열매가 참하고 짝 찼다.

<찬양예배>

제목 : 잊혀진 제자도

성경: 요한복음 12장 20-36절

Tag: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
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니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
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
기시리라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
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

나라라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
러라

34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
자는 누구냐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
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요12:20-36)

잊혀진 제자도. 달라스 웰라드

대부분 그렇지만, 사람들은 승리하고, 우승하고, 1등이 되는 것 좋아
하고, 폼 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친절함, 겸손함, 헌신함, 성실함, 심지어 명함 많음(책임감),
출세함 등의 제자도를 선전함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반열에
오르고 싶어한다.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대중의 인정을
받고, 존귀한 자로 존경받는 것에 일종의 목표의식이 생기고, 그 목
표의식이 일종의 방향성이 되고 가치의 기준이 되고, 윤리적 규범이
될 때 일종의 세속적 반감이 발생한다.

-2등은 억울한 마음이 들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자기들끼리 짜고
나를 왕따 시키는 것 같다.

-3등은 들러리 선 기분이고, 4등은 스스로를 못난이라고 여긴다.

-1등이 목표일 때의 규범이 모든 삶의 규범은 아니다.

-1등 하고싶어서 노래 연습하는 것과, 노래가 좋아서 노래 연습하는

것은 다르다.

-1등은 노래가 좋을 뿐 아니라, 재능도 좋아야 하고, 열정도 좋아야 하고, 출세해야 만 하는 절박감도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덕목들 중, 출세를 위해 이용하는 덕목들이 있고, 출세와 무관한 자신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덕목들도 있다. (겹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헬라인 제자 수련생에게 제시한 제자도는 다른 것이었다.

1. 희생의 제자도(24)
2.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도(26)
3.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26) 섬김의 도를 배우려면 예수님을 따라해야 함.
4.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며, 함께 거하고 떠나지 말라.(26)
5. 괴로움을 자청하는 제자도(27)
6.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제자도(28)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7.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제자도(지금 잘하라)(35)
8. 자신을 숨기는 제자도(36)-세속적 왕을 거부하는 예수님. 세속적 영광은 댓가가 있고, +, - 하면 남는 것이 없다. 부질없다. 그저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라.